

7강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요 8장)

오늘의 포인트

-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의 의미 이해
- 빛과 어둠의 극명한 분리 이해
-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주님의 말씀 이해
-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자유의 문제 이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7:53~8:11)

본문의 문제

많은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본문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행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본문의 가르침과 의미는 문맥에 유의미하다.

주요등장인물

-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율법으로 간음한 여자를 고소하는 사람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 자기 의가 산산조각날 만큼 부서진 사람
- 만인 앞에 치부가 드러난 사람
- 죽음 외에 출구가 없어 보이는 사람
- 율법에 의하면(레 20:10; 신 22:22이하),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죄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 너무나 옳은 사람들
- 타인에 대한 정죄와 판단의 근거로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 연민과 긍휼을 품지 않는 사람들
- 목마름과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교훈

주목할 대목

(7절)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반응

(8절a)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8절b)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위험한 복음이 교회를 낳는다.

복음은 인간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자기 의를 산산조각낸다.

누가 복음의 은혜의 수혜자인가?

- 죄인
- 자기 의가 산산히 부서진 사람

이 이야기는 세상의 어둠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배경

초막절에 행해지는 두 가지 의식

- 생수 :
 -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의 번제단에 붓는 의식
 -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다”(사 12:3).
 -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슥 14:8).
 - “너희가 바라는 생수가 솟아나는 일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 빛 :
 - 성전 안 여인의 뜰에 설치된 네 개의 큰 등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 초막절에 매일 밤 행해졌다.
 - “종말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빛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믿는 바(슥 14:7; 사 60:19~20), 내가 곧 그 빛, 세상의 빛이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 8:12)

구약의 빛: 구름기둥과 불기둥

-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떠나지 않으시는 당신의 임재를 보이셨고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출 13:21~22; 민 10:35~36)
- 하나님의 보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출 14:19~25).

빛과 어둠의 분리

- 어둠이 노출되고 쫓겨가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은 더욱 어둠 속으로 물러가게 되겠지만,
-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 3:19~21)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넘어져도, 길에서 벗어나도 다시 그 길에 와서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선언이 촉발한 그리스도 논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논쟁의 4가지 논점

1.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23, 26, 29)
2.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21~22, 28)
3.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누구인가? (26~27, 38, 54~55)
4. 예수님이 누구인가? (23~26, 38, 54~55).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는가?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아래서 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지만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요 8: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위/아래의 구분이나 세상에 속하였는가 속하지 않았는가의 구분은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영/육의 이원론적 구분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래’와 ‘세상’은 타락한 도덕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세상은 주님께서 그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심으로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다.

(요 7: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그들은 갈 수 없다(21).
-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환영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보좌로 돌아가실 것이나, 이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으므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21, 24).

(요 8: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 8: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요 13: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 내 아버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요 8: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유와 죄 논쟁: 자유하게 하는 진리, 자유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4)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 너희는 죄의 종이다.

(요 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 일을 행한다.

(요 8: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 8:40~41)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 복음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 “내가 메시아이고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므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요 8: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찾고 있지만 결국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죄—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요 8: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21절)로부터 파생한다.
- 도둑질, 강도질, 온갖 못된 죄들을 지음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모든 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로부터 파생한다.

“내가 그인 줄”(24,28)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과 같이, “내가 ~이다”라는 형식을 가지는 이 표현은, 주님의 신성에 대한 선언이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의미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나타내시는 주님의 신성 표현 방식이다.

-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개역개정역)
- 나는 곧 나다.(공동번역, 새번역)
- I AM WHO I AM. (ESV)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

(요 8:56~58)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가 누구인가를 드러낸다.

(요 8: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요 8: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의 반응

(요 8:59)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의 적용

-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라.
 - 그 여인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가?
 -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 주님의 관점으로 불신 세상/영혼을 바라보라.
 -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죄와 마귀의 종이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 우리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 주님은 우리 빛이시고, 우리는 경험과 경륜과 알량한 지식을 의종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 빛이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